

노인학대 예방

# 실버스마일



##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

-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.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.
-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.
-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핍니다.
-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29 또는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-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

## 노인학대 신고 · 상담전화

# 129

또는

# 1577-1389

일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

##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!!



신고



접수



현장조사



사례판정



서비스 제공



평가 및 종결



사후관리



보건복지부



노인보호전문기관

**노인학대란?**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

**알기 쉬운 노인학대 사례**

**신체적 학대**



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할아버지는 장남 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. 알코올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,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.

**정서적 학대**



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.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“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” “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 된다” 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.

**성적 학대**



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할아버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.

**경제적 학대**



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상습적으로 노부에게 금품을 가로챘고, 노부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.

**방임**



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.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,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.

**유기**



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부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은 상황을 반복하였다.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부를 이웃이 발견하고, 경찰에 신고하였다.

**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.**

**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**

-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

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**

-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
-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
-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-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
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**

-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**129** 또는 **1577-1389**

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!! [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]

노인학대 없는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.